

#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Unless You Repent

누가복음 13:1-5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3월 27일 설교

<sup>1</sup>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sup>2</sup>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sup>3</sup>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sup>4</sup>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sup>5</sup>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 사고 두 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두 주 전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밀려와 이만 명도 넘는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텔레비전에서 보셨지요? 쓰나미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줄 몰랐습니다. 자동차도 집도 동등 떠내려가는데 물이 빠진 뒤의 사진을 보니까 높다란 집 지붕에 자동차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거나 사라진 사람이 이만 수천 명인데, 여러분, 이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게 다가 아니지요. 지진이랑 쓰나미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그걸 수습을 못 해 제정신이 아닙니다. 잘 수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많이 불안한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수습만이나 되는 이재민 구호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지진이 난 다음날인가 한국 언론이 한국 목사 두 사람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우상을 섬겨서 이번에 지진이 났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지어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한 분은 누구보다 일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 분 처남 되는 목사는 대 놓고 떠들었습니다. 일본이 우상을 섬기면서 까부니까 하나님이 이것 좀 봐라 하면서 일본을 혼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남 목사님 덕분에 자형 목사님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난 바로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에는 여기서 가까운 뉴욕 브롱스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다니던 95번 도로, 그 가운데서도 플러싱에 갈 때 이용하는 14번 출구 근처에서 버스가 넘어져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는데 버스가 두 동강이 나면서 열다섯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 교통사고가 참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하니 정말 남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고가 난 다음 주에 뉴욕에 가면서 그 기둥을 보았는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던 곳인데도 이번에는 상당히 긴장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이번에 사고가 난 버스가 카지노에 다녀오던 버스라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차이나타운에서 사람들을 싣고 커네티컷에 있는 도박장으로 가 내려준 다음 밤을 새워 도박을 한 사람들을 새벽에 싣고 돌아오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다 하는데 도박장에 다녀오던 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참 안 하기 어려운 생각이 있지요? 밤을 새워 노름을 하고 오다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 누구나 하는 생각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나 마음이 아플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당해도 그렇고, 교통사고 같은 걸로 누가 죽거나 다쳐도 그렇고, 세상 살다가 돈 없고 힘 없어서 너무 힘들 때도 그렇고, 몸에 큰 병이 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그렇고, 하여간 무슨 종류든 고통이 오면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본인도 하고 다른 사람도 합니다.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또 사람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요 9:1-3).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갖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 그렇지 그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지어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 마음속에는 남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불행이나 아픔은 하나님에게 받는 벌이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온 갈릴리 사람들을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쳐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예수께 알려 드렸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건을 예수께 보고한 사람들 마음에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빌라도의 칼에 죽는 벌을 받았을까 궁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 생각이 틀렸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비극을 겪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보기도 드셨습니다. 전에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열여덟이나 깔려죽었던 모양인데 그 때도 사람들은 그 열여덟 명이 무슨 남다른 죄를 지었을까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 그런 게 아니라고 거듭 가르쳐 주셨습니다.

## 죄가 낳는 아픔

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운 우리는 고통은 다 죄에서 왔다고 알고 믿습니다. 처음 에덴동산에는 고통이 없었는데 아담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고통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하와는 남편 및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었고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는 노동, 그러니까 먹고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창 3:16-19).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으니 자연재해도 죄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죽음 역시 죄 지은 인간이 받은 벌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죄를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한 섬에서 모닥불에 나무를 넣다가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행 28:4). 그걸 본 원주민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바다에서는 목숨을 건졌는지 모르겠지만 정의의 여신이 결국은 살려두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물리면 죽사하는 무서운 독사한테 물린 걸 보니 큰 죄를 지은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본 거지요. 바울이 안 죽으니까 나중에는 신이라 생각하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만 이 사람들 역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뒤집어서 고통은 곧 벌이요 벌을 받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소년도, 빌라도의 칼에 죽은 사람도,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도,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어 그런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자, 고통이 죄에서 온 건 분명한데 그 사람 본인의 죄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 죄라는 말씀입니까?

죄 짓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 하는 게 죄와 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세상에 죄의 씨를 뿌리고 그래서 고통의 열매를 던져줄 때 이 죄와 벌의 법칙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이 오긴 오되 죄 지은 사람이 그 고통을 안 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술 먹고 운전한 사람은 사고를 내도 멀쩡한데 그 사람에게 받힌 사람은 죽습니다. 돈만 밝히는 건축업자가 부실공사의 죄를 지었는데 그 건물 안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깔려 죽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부모가 문란한 성생활을 해 에이즈에 걸렸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자녀들이 에이즈를 갖고 태어나 고아로 살다가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죄 자체도 나쁘지만 죄가 낳는 고통 역시 참 의롭지 못합니다. 마귀가 참 못됐지요? 죄와 고통을 가져온 것만 해도 나쁜데 죄 지은 사람은 빠져나가고 오히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고통을 받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 옳은 고통

죄와 벌의 법칙이 깨져 버리면서 이 세상에는 억울한 고통이 많아졌습니다. 자기 죄로 고통 받는 사람도 없진 않지만 남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자연재해처럼 이유가 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난 열심히 착하게 산 잘못밖에 없는데 왜 그런 나한테 이런 엄청난 고통이 옵니까? 고통의 문제만 생각하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뭍니다. 아무리 물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할 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한 권 있지요? 옳기입니다. 옳기에는 더 깊은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에 살피기로 하고 이 옳기를 통해 우리는 일단 이 세상의 고통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죄 지은 사람이 지은 죄만큼 벌을 받는, 죄와 벌의 법칙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큰 잘못 없이도 고통이 올 수 있고,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도 많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도 이런 고통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다 됩니까? 옳의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욥의 시작이 어떨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믿고 순종했습니다. 사소한 죄 하나도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혹 모르고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한 마디로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철저히 살도록 잘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 복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막대한 재산을 가져 당시 세계 최고 부자였고 자녀도 칠남 삼녀나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상 받는 참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왔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알거지가 된 거지요. 사랑스럽던 칠남 삼녀, 열 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열 두 명이 와글거리던 집인데 다 죽고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몸에 병까지 났습니다. 악창이 온 몸에 났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재 위에 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 뒤죽박죽이 된 법칙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사탄이 장난을 쳐 그렇게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도 한 몫 하셨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워낙 잘 섬기다 보니 하나님이 그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니? 욥처럼 나를 잘 섬기는 착한 사람이 어디 또 있겠니? 그랬더니 사탄이 빈정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재산도 엄청나게 주시고 자녀도 열 명이나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한 번 빼앗아 보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고통이 왔습니다. 떼강도가 들어 그 많던 재산을 다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열 명이나 되던 자녀도 건물이 무너져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몸은 아직 건강하니까 그렇지요 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번에는 욥에게 큰 병을 주었습니다. 온 몸에 병이 나는 이 두 번째 고통은 왜 왔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큰 불행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섬겼기 때문에, 쉽게 말해 죄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고통이 왔습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먼 곳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욥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대성통곡을 하며 일주일씩을 녀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욥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대화한 내용이 욥기입니다. 사실 이 장이나 되는 긴 욥기가 대부분 이렇게 욥과 친구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도 직접 등장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는 죄와 벌의 원칙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복 받았던 욥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풍성하게 가졌던 게 복이라면 지금은 벌이요 저주 아니겠습니까? 아무 까닭도 없이 벌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욥에게 권고했습니다. "자네 틀림없이 무슨 큰 죄를 지었구먼. 얼른 자백하고 회개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것일세." 욥의 친구들은 진정 친구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즉각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복을 주실 거라고 욥에게 거듭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난 그런 죄 지은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 회개도 못 한다 하고 버텼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설득하고 권고하고 심지어 위협을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정도로 나쁜 짓은 한 일이 없다 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 하나님의 결론

논쟁이 이어지고 이어져 끝이 날 기미가 안 보이자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욥을 꾸중하셨습니다. 피조물 주제에 왜 그렇게 뻔뻔하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의 친구에게는 꾸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욥이 한 말은 옳지만 너희들이 한 말은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욥 42:7-9). 그래서 제사를 드려 용서를 구하라 하시고는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욥의 기도를 듣고 세 친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틀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당한 불행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보고 그런 벌을 받게 만든 숨은 죄가 있을 것이라 본 게 틀렸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보고 죄를 자백하라 강요한 게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괴로웠습니다. 세 겹으로 된 고통이었습니다. 우선은 당한 그 일이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한 고통은 도대체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답답해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분명한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라도 좀 알려 달라고 하나님께 거듭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옴의 친구들은 그런 옴에게 세 번째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넌 죄인이다 하는 정죄의 아픔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논리는 가진 자의 논리였습니다. 가지지 못한 옴, 아픈 옴, 고통 받는 옴을 죄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안 아픈 나, 장애가 없는 나, 고통이 없는 나는 죄 없는 의로운 사람임을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샅던 것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보고 죄를 생각할 줄은 알았지만 그 죄를 생각하는 나 역시 죄에 물들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통 받는 저 사람은 죄인이고 고통이 없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저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라 착각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보고 물어본 제자들도 그랬고 빌라도가 사람을 죽이고 사고가 나 사람이 죽었을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 해서는 안 될 생각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에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하나님을 안 믿고 수만 가지 귀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전체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삼십 만 명이라 하니 한국의 가장 큰 교회 교인 수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런 땅에 지진이 났다 하니 그걸 우상과 연결시키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지진은 일본에만 나는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났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도시 이름이 크라이스트처치입니다. 주민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는 동네입니다. 몇 해 전 지진이 나 많이 죽은 아이티는 무슨 죄입니까? 오랜 세월 강대국에게 시달리고 독재에 시달린 주민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또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도박장에 다녀오던 버스가 사고가 났다 하면 더 참기 어렵지요. 밤을 새워 노름을 하던 사람이 열다섯이 한꺼번에 죽었으니 벌을 받은 게 틀림없어 하는 생각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도 참아야 됩니다. 차이나타운에서 도박장에 밤을 새고 오는 사람이 매주 삼만 명이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벌 안 받습니까? 또 지난 해 구월에는 교회 밴이 고속도로에서 굴렀는데 그 교회 목사를 포함해 여섯 명이 죽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는 도박장 다녀오던 버스만 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가던 차도 나고 교회 소풍을 다녀오던 차도 납니다.

## 고통과 죄

오늘 주님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의 크고 작은 고통을 어떻게 볼 것인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통은 어떤 것이든 죄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합니다. 그러니 어디서 큰 사고가 나든 아니면 내가 손가락을 조금 다쳐 아프든 죄를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는 죄도 늘 함께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저주 받은 자연의 모습이고 갖가지 사고 역시 사람의 탐욕이나, 부주의나, 불성실함 같은 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장애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나도 죄인이니까요. 죄가 주는 고통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받을 영원한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고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 잘못된 것은 없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고, 내 삶을 열른 바로잡아야 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주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죄와 벌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고통은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의 구체적인 이유는 모릅니다. 옴은 사탄이 장난을 쳐 고통을 받았는데 사탄이 장난을 쳤다는 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옴에게 재산도 두 배로 주시고 자녀도 열 명을 더 주셨지만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그건 끝까지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안 알려주시는 답을 내가 영터리로 만들어 이웃을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웃을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선은 고마워해야 맞지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받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 고통을 받는 셈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도 사람 아닙니까? 나도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사실 내가 겪을 고통을 나 대신 겪는 사람입니다. 지진 피해자도 사고 희생자도 사기를 당한 사람도 배신을 당한 사람도 병에 걸린 사람도 어떤 아픔이든 나를 위해, 나 대신 겪는 아픔입니다. 그러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돈이나 수고나 말을 통해 그 아픔을 함께 나누도록 애쓰는 것이 옳습니다.

## 하나님의 사랑

셋째로는 고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도 도움은 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하지만 그것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생각하고 아픔을 서로 나누고자 애도 쓰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인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에 섬세하게 반응하십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고통에서 건지려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직접 맛보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죽음의 고통까지 맛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실 때도 그 아들의 죽음을 그냥 두고 보셨습니다. 죽는 아들보다 아들을 죽게 두어야 하는 아버지의 더 큰 고통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 고통은 곧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곧 고통, 그러니까 아파하는 사랑입니다. 아픔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곧 구원과 영생의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고통 받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도박에 빠진 중국 사람들도 수만 가지 우상에 빠진 일본 사람들도 그 고통이 계기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우주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에는 죄와 벌의 법칙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억울한 고통의 문제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금도 억울하고 답답한 고통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크고 작은 아픔이 다 있습니다. 내가 아픔을 느낄 때도 또 아파하는 이웃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한다” 하신 주님 말씀을 새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